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신민철  
(044-200-2132, 2135)

## 여자농구 남북단일팀 격려 및 조코 위도도 대통령 예방 (8.20)

□ 아시안게임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8.20(월) 오전 아시안게임 최초로 운영되는 코리아하우스\*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, 북한 김일국 체육상 등 북측인사들과 함께 여자농구 남북단일팀 경기를 응원했습니다.

\* 코리아하우스 개요

- (운영목적) 한국 문화홍보 및 국제스포츠 교류의 장 마련
- (운영장소)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 상가
- (운영주체) 대한체육회

○ 경기 후에는 코트에 내려가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, 짧은 훈련 기간에도 훌륭한 호흡을 보여준 선수들을 격려하고, 일부 북한인들과 인도네시아 동포 등이 함께한 남북응원단을 찾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궁 (Istana Merdeka)에서 조코 위도도(Joko Widodo)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

○ 이 총리는 롬복 섬 지진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으며,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북한 공동입장, 단일팀 구성 등에 협조해주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.

-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진피해 위로서한을 받았음을 밝히고,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위로의 마음에 감사하다고 했으며,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적극 지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도울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.
-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역동적인 경제발전 과정에 한국정부와 민간기업이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.
  - 이어 한국 대기업의 원활한 대인도네시아 투자, 한국기업의 2~3단계 경전철 건설사업 참여, 양국간 5G 협력 등과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
  -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투자확대, 한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림복 섬 방문,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등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